

^^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유현주 선생님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고전 문학’입니다.

이 부분은 A형 학생이건, B형 학생이건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데요.

제가 2014학년도 예비수능과 EBS 수능특강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4학년도 예비 수능에 출제된 문제를 보시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공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문은 각각 A형, B형에 따라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쓰여져 있죠.

<2014학년도 예비수능 A형 35~36>

㉠ 우는 것이 빠꾸진가 푸른 것이 버들술인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漁村) 두어 집이 내\* 속에 나락들락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말잘고 깊은 소(沼)에 온갖 고기 뛰노누나  
 <춘(春) 4>

연잎에 밤 씨 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달 들어라 달 들어라  
 청약립(靑藥笠)은 씨 있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나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 무심(無心)한 백구(白鷗)는 내 좇는가 제 좇는가  
 <하(夏) 2>

㉢ 수국(水國)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달 들어라 달 들어라  
 만경정파(萬頃澄波)\*에 실컷 용여(容與)하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인간(人間)을 돌아보니 밀수록 더욱 좋다  
 <추(秋) 2>

㉣ 물가에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짝씩하고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머흔\* 구름 한(恨)치 마라 세상(世上)을 가리운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 파랑성(波浪聲)\*을 염(厭)치\* 마라 진찢(塵喧)\*을 막는도다  
 <동(冬) 8>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내: 바닷가에 자주 나타나는 안개와 같은 현상.
- \*만경정파: 넓게 펼쳐진 맑은 물결.
- \*용여하자: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놀자.
- \*머흔: 험하고 사나운.
- \*파랑성: 물결 소리.
- \*염치: 싫어하지.
- \*진찢: 속세의 시끄러움.

A형에서는 기존 수능처럼 현대 국어의 모습과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끊어 적기 표기도 쓰이고 있고, 표의적 표기를 기본 표기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읽고 해석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죠.

35~36번은 B형과 공통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서 난이도를 나눠 출제하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 쓰인 표기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차이가 될 수 있겠죠.

㉠ 우는 거지 벽구기가 프른 거지 버들술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漁村)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지국총(至智聰) 지국총(至智聰) 이스와(於思臥)  
 말가할 기른 소희 온갈 고기 튀노는다  
 <춘(春) 4>

년넝희 밤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리라 달 드리라  
 청약림(靑嶽笠)은 싸 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나  
 지국총(至智聰) 지국총(至智聰) 이스와(於思臥)  
 ㉡ 무심(無心)흔 빅구(白鷗)는 내 좃는다 게 좃는다  
 <하(夏) 2>

㉢ 슈국(水國)의 그을히 드니 고기마다 술져 인다  
 달 드리라 달 드리라  
 만경덩파(萬頃澄波)\*의 슬긱지 용여(容與)ᄇ자\*  
 지국총(至智聰) 지국총(至智聰) 이스와(於思臥)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추(秋) 2>

㉣ 물그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석석흔고  
 비 킨여라 비 킨여라  
 머흔\* 구름 흔(恨)티 마라 세상(世上)을 그리온다  
 지국총(至智聰) 지국총(至智聰) 이스와(於思臥)  
 ㉤ 파랑성(波浪聲)\*을 염(厭)티\* 마라 딘찐(塵喧)\*을 막는포다  
 <동(冬) 8>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 닛: 내. '내'는 바닷가에 자주 나타나는 안개와 같은 현상.
- \* 만경덩파: 넓게 펼쳐진 맑은 물결.
- \* 용여ᄇ자: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놀자.
- \* 머흔: 험하고 사나운.
- \* 파랑성: 물결 소리.
- \* 염티: 싫어하지.
- \* 딘찐: 속세의 시끄러움.

문제는 B형입니다. 2002학년도 수능 이후로 중세 국어 표기가 출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보통 표음적 표기를 그대로 살려 표기한 예는 많았으나, 소멸된 · 의 표기나 구개음화 · 단모음화, 두음법칙, 원순모음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은 2002학년도 두보의 ‘강촌’이란 작품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바뀌어 중세 국어의 모습까지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고1 교육과정에서 이미 다 숙지한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 10여년간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기엔 내신 공부 이후로는 중세 국어는 거의 본 적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당황스러운 경우죠. **그렇지만 다행으로 생각되었던 점은 중세 국어의 문법까지는 묻고 있지 않았더라는 점이었습니다.**

앞서, 문법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B형의 경우에는 예비수능 16번 문제처럼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의미 변화’ 정도로만 출제되었습니다. 고전 원문이 나오긴 했지만, 풀이도 달려 있었고, 문법적 접근이 아닌 단순한 어휘의 의미 변화를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파악된 바로는 2014학년도 수능의 A형에서는 기존 수능과 유사하게 현대 국어의 표의적 표기를 기본으로 출제, B형에서는 중세 국어 문법을 그대로 살려 표음적 표기와 · 표기, 구개음화, 단모음화, 원순모음화, 두음법칙 미 적용 등의 중세 국어 문법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라는 것 정도입니다.

이제, EBS 수능특강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248 EBS 수능특강 A형 고전문학>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A] 꽃 피고 날 저물 제 정처(定處) 없이나가 있어,  
**백마 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 어디 머무르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끊었어도 생각이야 없을쏘냐.
- [B]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면 좋으련만,  
 열두 때 길기도 길구나 서른 날 지리(支離)하다.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었다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섞어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이고.  
 삼춘 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없다.
- [C]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슬(蟋蟀)\***이 상(床)에 올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돌이켜 풀어 헤아리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 [D] 청등(靑燈)을 돌려놓고 녹기금(綠綺琴)\* 비스듬히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섞어 타니,  
 소상 야우(瀟湘夜雨)의 덧잎 소리 섞어 도는 듯,\*  
**화표(華表) 천 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울고 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소래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리겠는가.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어\* 굵이굵이 끊겼어라.**
- [E]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무슨 일로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허난설헌의 ‘규원가’입니다. 출제된 작품도 유명 작품이고, 본문 내용도 평이합니다. 기존 수능과 유사하게 현대 국어 표기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형과 B형 교재의 공통 부분인 <수능형 연습문제4,5>에서는 우려하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p. 261 EBS 수능특강 A형·B형 공통 고전문학>

내 님블 그리수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숫하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들\*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루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훈디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몰히 마리신더\*

솔웃븐더\* 아으

니미 나물 허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A형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중세 국어 표기법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해석을 덧붙이지도 않았고, 그대로 출제된 것이죠. 이 부분이 A형 학생들이 제일 불안해 하는 부분입니다. 평가원의 의도를 정확히 살펴보려면 6월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렇다고 6월까지 중세 국어를 손놓고 있다가 그 때 반영이 된다면 더더욱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B형을 살펴볼까요.

<p.252 EBS 수능특강 B형 고전문학>

早既太甚(한기태심)하야 時節(시절)이 다 느즌 제

西疇(서주) 놉흔 논애 잠깐 긴 널비에

道上無源水(도상무원수)\*을 반만칸 디혀 두고

쇼흔 적 듀마 하고 엄섬이\* 하느 말삼

親切(친절)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黃昏(황혼)의 허위허위 다라가서

구디 다든 門(문) 밧기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춤 아함이를 良久(양구)토록\* 하온 後(후)에

어화 괴 뉘신고, 廉恥(염치) 업산 너옴노라

初更(초경)도 거윈디 괴 엇지 와 겨신고

年年(연년)에 이러하기 苟且(구차)흔 줄 알건만논

쇼 업슨 窮家(궁가)애 헤염 만하 왓삽노라

공하이나 갑시나 주엄 즉도 하다마논

다만 어제 밤의 거넨 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雉(치)을 玉脂泣(옥지읍)계\* 꾸어 넣고

간 이근 三亥酒(삼해주)을 醉(취)토록 勸(권)하거든

이러흔 恩惠(은혜)을 어이 아니 갑흘넉고

來日(내일)로 주마 하고 큰 言約(언약) 하야거든

失約(실약)이\* 未便(미편)하니 사설이 어려왜라

實爲(실위) 그러하면 혈마 어이할고

헌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오니

風采(풍채) 저근 形容(형용)애 기 즈칠 뿐이로다

어떤 작품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매우 친숙한 박인로의 ‘누항사’입니다. 단순히 말만 중세 국어로 바뀌어 출제되었을 뿐인데 내용 자체가 아득해지시죠.. ㅠㅠ

고전 문학은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문이 쓰여질 경우에는요.

더군다나 앞서 문법편에서 말씀드렸듯이 EBS 수능특강 교재에서는 ‘중세 국어 문법’ 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12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 『두시언해(杜詩諺解)』에 실려 있는 「춘망(春望)」이라는 작품을 배웠지요? 오늘은 이 작품의 언어 변화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두시언해』는 1481년에 초간(初刊), 1632년에 중간(重刊)됩니다. 초간과 중간이 약 150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언어 변화를 탐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다음 자료를 보고 어떠한 언어 변화가 있었는지 발표해 볼까요?

「춘망(春望)」(1481년)	「춘망(春望)」(1632년)	「춘망(春望)」(현대어 역)
:피·과꺾·롬·썩잇고	피과꺾롬썩잇고	산과 강만은 여전하고
:새모수·물·놀·래·노·다	새모수물놀래노다	새조차 마음을 놀라게 한다
:석·도돌니·세시·니	석돌롤니어시니	석 달이나 이어졌으니

\* 글자 원편의 ‘:’, ‘.’은 방점을 나타냄.

학생: \_\_\_\_\_

- ①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은 15세기와 17세기 사이에 없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 ② 17세기 이후 고유어 중 일부는 한자어로 바뀌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 ③ 현대어 ‘마음’은 15세기에 ‘모슴’, 17세기에 ‘모움’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어요.
- ④ 15세기와 17세기에는 현대와 다르게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 ⑤ 15세기에는 17세기와 달리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표기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어요.

실전모의고사에 실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문법의 차이를 묻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A형이건, B형이건 목표를 100점에 맞추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선 여러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의 경우는 수능 시험 당일날 교문 앞에서 TV 뉴스 인터뷰를 했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던 도중 난생 처음 방송 출연이라는 말도 안되는 변수를 눈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무 놀란 나머지 인터뷰 도중 울음을 터뜨렸고 시험장을 들어가는 내내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은 시작되었고, 언어영역 맨 처음 듣기 문제에서 몇 문제를 놓치게 되자, 1교시부터 내내 울면서 시험을 봐야 했었죠. 결국,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여 인서울을 충분히 할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가야할 대학의 캠퍼스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변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100점에 맞춰 공부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생에 있어 겪게되는 몇 가지 큰 기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학’인데, 그 기회를 단순한 ‘운’에 맞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실제 시험에서 원점수 100점을 맞는 학생들은 절대로 100점짜리 실력의 학생들이 아닙니다. 수능이 절대 평가이기 때문이지 그들의 원점수는 150점 이상이라는 거죠. 그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중세 국어 문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개념도 아니고, 이미 고1 그것도 1학기에 모두 배웠던 개념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A형이건, B형이건 기본적으로 고전 문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세, 근대 국어 문법’을 정리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교재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부각시킬 겁니다. 고전 문학은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개인적 상징보다는 관습적 상징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표현이 많고, 주제도 간단합니다. 양반들은 충이나 효를 굳이 어렵게 비유하거나 돌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고, 어차피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해석할 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중은 반드시 비유와 상징을 거쳐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야 하지만 그럴만한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참신한 표현들은 많아도 단순한 표현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결국, 고전 문학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부분은 바로 해석이 될 겁니다.**

실제로 고전 소설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누가, 무슨 말을 하는 지 모르겠어요.”**

입니다.

지칭하는 말들도 많고, 누가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해석이죠.

그래서 고전 문학 역시 문법이 수반되어야 하고, 중세 국어의 문법은 반드시 현대 국어의 문법이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로, 공부 순서는 ‘현대 국어 문법 → 중세 국어 문법 → 고전 문학 분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문법과 고전 문학과의 상관 관계는 이 부분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순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머릿속에서 국어에 대한 개념 자체, 각 분야별로 체계화되는 느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제가 수업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시’라는 갈래에 대한 이해, ‘소설’이라는 갈래에 대한 이해, ‘문법’의 개념들에 관한 이해, ‘독서’라는 갈래에 대한 이해 등등.

**국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문제의 구성 원리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수능은 절대 미시적 관점으로는 완벽한 점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수능 자체가 거시적 분석 관점을 요구하는 시험이기 때문이죠.

아직은 누구도 확언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두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EBS 교재 만으로도 불안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스승은 그들의 고민을 보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완벽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 집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부디 우리 학생들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잠재우길 기대하며 계속해서 다음 글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